

The birth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oad to the Korean War, Niu Jun

2차 대전 이후 중국의 운명을 결정한 두 가지 사건: 알타 회담과 소련과 국민당 간의 중소우호동맹조약(1945. 8. 14)

미국은 장개석을 지지. 향후 장개석의 중국을 축으로 아시아 정책을 추구. 스탈린 역시 장개석 중심의 중국에 찬성. 중국 공산당의 이념 노선 및 중소 이익 합치에 대한 회의.

1945년 여름까지 미국과 소련은 모두 장개석의 중국을 축으로 내전을 방지하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선에서 합의하고 있었음.

일본의 패전 이후 장개석은 중국의 동부, 북부, 만주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충분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음. 장개석은 공산당과 정치적 타협을 추구함. 미국도 이를 선호하고 있었고, 장개석도 충분한 군사력 확보 미흡.

당시 소련과 중국 공산당은 내전 발생 시 미국의 개입을 확신. 장개석과의 협상과 공동정부 구성이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 10월 중경 협상과 소규모 분쟁이 발생. 중국 공산당은 자신의 힘이 국민당보다 약하고, 미소 간 협력이 지속되는 한 국민당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1946년 6월 국민당, 공산당 간 총력내전이 발생. 미소 간의 사이 악화와 양자 간 전쟁이 공명하는 관계.

미군이 최대 11만명 중국에 파견, 동북부에서 공산당과 전쟁을 벌임. 그러나 내전이 가능성이 줄어들고 장기화조짐을 보이자 트루먼 행정부는 협상 중재로 돌아섬. 미소 양국군이 충돌할 가능성도 존재. 소련은 국민당 주도의 민주정부를 지지하는 노선을 택함.

장개석은 만주에 주둔한 채로 소련과의 관계 모색, 미래 협력관계를 약속함. 1946년 2월 들어 미국은 소련을 만주지역에서 몰아내려고 시도. 국민당에게 이러한 임무를 부여함. 미국의 지원을 확신한 국민당은 3월 들어 소련과 점차 적대하기 시작함. 국민당과 미국은 점차 만주에서 공산당의 완전 제거를 목표로 삼고 전적으로 협력하기 시작.

반면 공산당은 국민당과의 합의를 추구하면서도 만주에서의 세력 보존에 주력. 공산

당은 장춘, 하얼빈을 점령하고 있었지만, 점차 국민당이 공격해 오면서 전국에 걸친 내전으로 상황이 악화됨. 그러자 소련은 공산당이 만주 북부를 차지하도록 군사적 도움을 주기 시작. 냉전의 논리가 작동되기 시작함.

1946년과 1947년 중국의 PRC가 성립되면서 소련과 중국 공산당 간의 공식적인 협력 관계가 안착. 중국은 공산주의 혁명을 세계 공산주의 혁명의 시각에서 간주함. 1948년부터 소련의 대중 원조가 증가하기 시작. 1949년 1월 스탈린은 중국 공산당에게 국민당과의 협상을 제안. 마오는 격렬하게 반대. 이후 중소 간 고위급 회담이 다수 개최됨.

이후 1945년 8월이 중소조약이 공산당의 주된 관심사가 됨. 1949년 12월 16일 마오의 모스크바 방문 시 조약 파기를 다시 요청. 스탈린은 수정하는 선에서 합의. 이후 1월 2일 소련은 새로운 조약 체결에 찬성. 그리하여 1950년 2월 14일 중소 간 우호 및 상호원조 조약 체결. 대련 항 문제도 타결. 만주와 신장에서 다른 국가들이 들어 오지 못한다는 보조 조항도 마련됨. 중국은 이로써 미국에 대한 두려움, 혹은 선망을 모두 버리고 미국에 도전하는 정신을 가지게 됨. 중국은 소련이 중국과 미국 간 관계가 형성될 것을 우려하는 바를 알고 미국과의 관계 단절 모습을 보여주려고 주력. 중국은 1948년 말 선양의 미국 영사관에서 미국 외교관을 체포하는 등 적대행위를 행사.

한국전쟁과 중국 참전. 1949년 7월-1950. 4. 중국에서 싸웠던 북한군이 귀향. 1949. 5. 중국은 북한에게 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했지만, 북한의 남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백히 함. 스탈린은 이러한 마오의 입장을 알았기 때문에 1950년 4월 북한의 공격을 승인할 때까지, 김일성에게 마오와 상의하지 말도록 요구. 5. 13. 마오는 김일성으로부터 스탈린의 남침 허락사실을 인지. 중국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도 유보적 자세. 북한 지원은 스탈린의 책임이라고 생각.

전쟁이 시작되면서 대만해협과 동남아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우려가 발생. 이후 미국이 중국에도 세력 확대할 것이라는 두려움. 8월 4일 정치국 회담에서 마오는 미국 위협론 논의. 8월 26일 주은래는 미국 개입의 도미노 효과 언급. 이후 중국의 참전에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사건. 1. 대만 해협 봉쇄가 미국 참전과 동시에 이루어짐. 2. 미국의 38선 이북 진격. 주은래는 인도대사를 통해 미국에 중국의 참전 가능성을 전달. 그러나 결국 10. 7. 미국군은 38선을 넘어 진격.

마오는 스탈린으로부터 전쟁이 중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보장을 받음. 10월 1일. 마오는 참전을 결정. 미국이 중국 진격시 소련이 도와주겠다는 내용을 전달. 소련은 중국의 참전과 더불어 공군 지원을 약속함. 그러나 소련은 막상 전쟁에 임해

미온적 태도. 10. 14. 전쟁계획을 정비. 10. 18. 중국군이 한반도 진격.

The Korean War, William Stueck

한국전쟁의 결과: 분쟁의 군사화. 미소 간 군사균형 공고화. 중국 분단 공고화. 미국의 인도차이나 개입 심화. 미중 간 관계악화. 동남아 분쟁 가능성 증가. 중소 동맹 강화. 동시에 중소 분쟁의 씨앗 생성. 한반도 분단 고착화.

한국전쟁까지의 역사를 평이하게 서술. 한국 내 군정의 상황, 북한 내 김일성 집권 과정. 특이한 점은 별무.

274쪽. 1950년 3월말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 드디어 스탈린이 전쟁 허용. 세가지 조건. 1. 마오의 찬성, 2. 한국의 북침에 대한 대항으로 보이도록. 3. 미국과 문제 발생 시, 소련이 아닌 중국에 의존하여 지원병을 받을 것.

전쟁 전 미군의 철수 이유. 여론과 행정부, 입법부 간 갈등. 국무부와 국방부의 갈등도 중요. 이승만 정권에 대한 미국의 양면 기준. 재정문제도 한 몫.

한국전쟁은 네 시기로 구분. 1. 발발부터 인천상륙작전. 국제전화의 성격. 중국은 대만해협에 대한 미국 개입 방지, 만주지역에 군사력 집중. 소련은 UN에 복귀. 미국은 한국 주도 하의 통일계획. 미국은 아시아, 유럽 재무장 박차. 2. 유엔군의 반격기. 미국 동맹체제 내 균열 가능성. 유럽은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을 경계. 서독 재무장을 위한 미국의 제안과 소련의 방해 노력. 3. 1951년 중반 - 7월 10일.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UN 총회에서 제한적 제재를 단행. 트루먼은 맥아더 해임. 만주 지역으로 확전, 소련의 공군력 지원 등을 경계. 이후 휴전 논의 시작. 4. 이후 휴전협정.

미국은 일본과 평화조약 체결, 군사동맹을 위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개최. 유럽 동맹국들 설득. 중국, 러시아 배제됨. 이후 1953년 4월 스탈린 사망이 정전에 큰 요인이 됨. 소련의 지지가 불확실해지고, 공산권 내 불확실성이 증가한 때문. 동시에 1953년 1월 아이젠하워 행정부 출범.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태세를 증가. 대만의 중국 본토 공격을 막지 않는 정책 방향. 미국이 공세로 돌아서면서 포로 문제가 가닥을 잡고 정전으로 감.

한국 전쟁의 결과. 300만 한국인 사망, 부상, 행불. 전체 인구의 10%. 5백만은 피난민 혹은 이산가족이 됨. 1954년 5월 제네바 회의 이후 분단 영속화. 한국은 미국과 군사동맹 체결. 이후 전쟁 방지의 성과. 미국의 한국 경제지원 개시. 중국은 전쟁 승

리를 기화로 대만에 공세를 취하려했으나 불가능해짐. 그러나 중국 국내적으로 마오의 힘을 강화. 개인적, 당의 정치력 강화, 소련으로부터 경제지원 획득. 이후 중국의 핵무기 개발을 소련이 지원. 중국의 국제적 위신 강화. 소련과 대등한 외교적 지위까지. 소련으로서는 미중 연결을 막는 효과.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소 대립을 가능하게 하는 중국의 성장을 결과. 소련은 이후 경제적으로 악화. 동구권에 대한 경제 개발을 지나치게 강요해, 동구권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결과. 소련으로서는 한국전쟁이 안 일어났거나 차라리 1950년 말 한국 주도 통일된 것이 더 나았을 것. 미국은 나토 강화, 그리스, 터키의 나토 가입, 서독-프랑스 협력 기조 마련 등의 성과.//